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발전 기금 모금 요청의 건

- 기금 요청 목적
 - ▶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및 단합
 - ▶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 기부방법
 - ▶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
- 기부혜택
 - ▶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 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 운영방법 :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 정기적인 감사 실시
 - 운영실적 정례보고
- 기타사항
 - ▶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 (010-2345-3035)

“안전은 타협 불가” ...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총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엄중한 태도로 임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다.

공단은 매일 1만 명(어린이집 아동 3천5백 명, 병원 환자 6천2백 명 등)의 안전취약계층 고객과 1만 명이 넘는 직원이 이용한다. 대형 신축공사 및 도급사업도 연간 600여 건에 이르러 다양한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조직이다.

이에 공단은 ▲전 직원 안전의식 강화 교육 및 현장 안전 리더 지정 ▲안전 점검 로드맵 수립 ▲안전 매뉴얼 업그레이드 ▲현장직원·이용자 피드백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실시간 위험 포착 등의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종길 이사장은 전국의 소속기관장들에게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화재예방, 도급사업 안전관리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재난 발생 시 ‘선 조치 후 보고’ 체계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안전보건과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철학을 반영해 ‘안전윤리 경영본부’를 제1직제로 신설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박 이사장이 지난 6월부터 소속지사·병원·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안전경영 행보에 나서며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것을 무(無)로 돌리는 제로 변수”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술선수범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올 연말까지 안전슬로건 공모, 체계적인 안전 리스크 진단 등과 함께 타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해 국가 전체의 산업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57

정부·국회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고용노동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누구나 제안가능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 ▶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 ▶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 ▶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온라인으로 편하게 제안해 주시면 귀담아 들겠습니다

8.11(월)부터 8.27(수) 18시까지 항상 열려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목) 10:3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향후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점검 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후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산업안전감독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열정과 역량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등을 상시 밀착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 특공대로서 국민들께서 일터가 전보다 더 안전해졌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제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확실히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장을 밀착관리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위험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오늘 산업안전감독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상시 공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중 공감대가 큰 사안 등을 제안해 주신 분들은 9월 초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에 초대하여 현장에서 질문하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민분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9월 초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안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다양한 제안을 귀담아들겠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58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61

정부·국회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 김중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8(금)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29일 국무회의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 「산업재해 발생이 상장 제조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박선영·김명중, '23.)」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 제조안전고도화 R&D('25년 25.5억원)
산업단지 스마트안전 솔루션 설치 지원('23년 14.15억원, '24년 14.15억원, '25년 28억원)

김중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안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66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심업체 추출

□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 라며,

○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67

정부·국회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 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8.12.(화) 오전 9시 30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주)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구조적 원인에 천착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목적이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83

노동안전 확보와 노동권익 보호, 중앙-지방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12일(화)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위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임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감독 노하우 공유, 정례적인 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노동·산업안전 업무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여 주체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84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7/25, 부산 강서구]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 [7/27, 서울 금천구] 맨홀 내부에서 쓰러짐
- [7/28, 강원 동해시] 작업발판 사이로 떨어짐
- [7/28, 경남 의령군] 회전축에 안전대 짐승이 끼임
- [7/28, 충북 충주시] 원료탱크 내부에 떨어짐
- [7/29, 경남 창원시] 훗줄 해체 중 철제물에 맞음
- [7/29, 경기 용인시] 배관에서 도색작업 중 떨어짐
- [8/1, 전북 완주군] 변압기에 올라가 작업 중 감전
- [8/1, 경기 평택시]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 [8/3, 경북 영천군] 반응기에서 화재.폭발 발생
- [8/3, 경기 화성시] 홀러 사이에 끼임
- [8/5, 경북 상주시] 이동 중인 굴착기에 부딪힘
- [8/7, 전남 영암군] 지붕 교체 작업 중 떨어짐
- [8/8, 광주 서구] 제습기 설치 작업 중 휴대용 전등에 감전
- [8/8, 경기 의정부시]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 중 떨어짐
- [8/8, 부산 강서구] 안전대와 연결한 철제 구조물이 탈락하며 함께 떨어짐
- [8/9, 전남 곡성군] 운전 중인 지게차가 넘어져 깔림
- [8/10, 경기 양평군] 벌도목을 지탱하던 나무가 넘어져 맞음
- [8/10, 전남 고흥군] 정화 펌프 수리 작업 중 펌프에 감전
- [8/11, 경북 구미시] 옥탑 구조물 철거 작업 중 비계 기둥을 밟고 내려오다가 떨어짐
- [8/12, 경북 성주군] 철제 계단 제작 작업 중 넘어지는 제작물에 깔림
- [8/13, 경북 안동시] 쓰러지는 나무에 맞음

안전보건공단-한국철도공사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시동

안전보건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 ...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협력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과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이 8월 13일(수)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2025. 8. 13.(수) 15:00~
- 장소 : 코레일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
- 참석 :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등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 등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실현과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슬로건 개발 및 활용 ▲수급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범국민 대상 홍보협력 ▲지역사회 및 기업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안전 슬로건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선정했으며,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 종사자를 위한 재해 사례 및 작업 안전수칙 영상과 교안 등 맞춤형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안전보건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전국 역사 전광판 및 열차 객실 모니터를 활용해 산재예방 메시지를 송출하고, 산하 지역본부를 통해 온열질환 예방 집중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공단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정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두 기관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철도산업의 산업재해예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산재예방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617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인가?

2017년에 "JUUL(줄)"이라는 전자담배가 등장했을 때, 담배계의 "아이폰"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영어로는 e-cigarette라고 불리고, 우리말로로는 전자담배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니코틴 흡입제가 대중화된 것입니다. vapour(증기)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베이핑(vaping)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한 줄링(JUUL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자담배는 처음에는 해로운 담배 흡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광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들의 니코틴 중독을 증가시키면서 공중보건의 중대한 위협으로 떠올랐으며, 흡연자들의 입장에서 금연구역확대에 대처하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전자담배 폐손상 집단발병

2019년 8월 미국 전역에서 베이핑 관련 폐질환이 급증하였습니다. 미국 CDC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월 18일까지 총 2,807건의 사례와 68건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질환의 공식 명칭은 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associated lung injury (EVALI)입니다.

"처음에 EVALI 사례는 급성 호산구성 폐렴, 기질화 폐렴, 지질성 폐렴, 미만성 폐포 손상 및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ARDS), 미만성 폐포 출혈, 과민성 폐렴, 기관지주위 육아종성 폐렴 및 드문 거대 세포 간질성 폐렴을 포함하는 이질적인 폐렴 패턴을 보였습니다.

여러 보고에서 발견된 일관된 병리학적 특징은 지질이 풍부한 폐포 대식세포의 출현이며, 이 중 다수는 공포화되어 있고, 종종 공포화된 폐세포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소견은 화학물질 유발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후 생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연구 측정된 수많은 마커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에어로졸을 흡입한 후 폐 손상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CDC의 조사결과, 폐질환을 일으킨 전자담배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이라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40>

직무스트레스, 평가만큼 중요한 다음 단계는?

오늘 소개드리는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조직 수준의 직무스트레스 개입 관련 체계적 리뷰 52편을 종합한 리뷰인 리뷰에 대한 리뷰(overview of reviews)입니다. 이 연구는 어떤 조직적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 근거의 강도까지 함께 평가하여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실용적인 연구입니다.

어떤 개입이 효과적이었을까?

연구는 개입의 효과 수준을 강한 근거(strong evidence), 중간 근거(moderate evidence), 약한 근거(low evidence), 불충분(inconclusive)의 네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개입들에 대한 효과를 분류한 결과 근무시간 조정과 같은 업무 자체에 대한 구조적 개입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 근무시간 조정 (강한 근거)
 자율근무제, 교대제 유연화 등 근로자가 시간에 대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개입입니다. 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개선 효과는 일관되게 확인됐고, 건강 지표(예: 번아웃)에서도 긍정 신호가 일부 있었지만 연구마다 차이가 컸습니다.

▶ 작업 재설계-통제력 향상 (중간 근거)
 업무의 방식이나 조직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직무에 대한 통제력(job control)을 높이는 개입입니다. 이러한 개입들은 근로자의 심리적 건강이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효과는 다소 들쭉날쭉했습니다.

▶ 돌봄 방식 개선 (중간 근거)
 특히 치매 돌봄 등에서 간호 접근법이나 팀 기반 돌봄 방식을 바꾼 개입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간호 접근법(person-centred care), 간호사-물리치료사-가족이 팀으로 일하는 구조 개편, 표준화된 업무 절차 정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진감, 직무 스트레스, 만족도 개선 효과가 일부 확인됐지만, 지속성과 일반화 가능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리더십 교육, 폭력 예방 교육 등 (약한 근거 또는 불충분)
 교육 중심의 개입은 지식 향상, 자신감 증가 등에서는 효과를 보였지만 스트레스나 건강지표 개선까지 이어지는 효과는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41>